

手는 무릎위에 놓았으며 結跏趺座에 正面像을 하였다.

臺座는 前記 外坪里것과 같이 下臺石、中臺石、上臺石으로 區分되는데 下臺石은 伏蓮盤石인 바 大部分 埋沒되어 下部 彫刻이 尙금하다. 中臺石은 八角形인 바 八面中 後面 二間은 아무런 彫刻이 없고 나머지 六間에 長楕形 眼象이 彫刻되고 眼象內에는 精密하게 浮刻된 神像 등을 配置한데 注目되는 바 風化로 仔細치 않으나 甲冑를 着하고 或者는 寶塔을 들고 或者는 戟稍을 잡고 있는 四天王像과 怒氣의 相과 勇猛한 筋力을 나타내는 仁王像이 推定되었다. 上臺石은 三層級의 八角반침이 造出된 半球形인 바 雄麗한 八個의 單瓣仰蓮文이 彫刻되었다. 이 蓮瓣內에는 坐佛(總八軀)를 配置하였으니 他에서 보지 못하는 異例로서 이는 頭光、身光內의 蓮花座에 禪定形을 取한 坐像이다. 그리고 上臺石 上面은 圓形을 이루어 佛像을 安置하게 하였다.

以上 記述한 道谷里石造佛座像은 磨損과 青蘘로 彫刻이 稀微해졌지만 그 溫柔하고 豐滿한 相好、高古한 彫法을 보이는 衣紋、中臺石의 流麗한 眼象、眼象內의 神像의 配置、上臺石의 蓮瓣內에 配置된 坐佛等도 手精巧한 手法으로 前者 外坪里石造佛坐像과 樣式手法이 같으며 年代 또한 羅末麗初로 推定된다. 그리고 道谷里石造佛坐像의 特異한 것은 地形이 南傾斜를 이룬 곳에 東向하고 있으니 그 原位置를 變更치 않았다면 或 榮州 浮石寺 無量壽殿의 例와 같이 南向法堂에 東向佛像을 奉安한 類例인지도 모르겠다(地上高三〇〇cm, 佛像高二〇〇、膝幅一六五cm、座臺高一〇〇cm).

註

- ① 金沙面은 川寧縣金沙里 인 바 東國輿地勝覽卷之七 驪州牧古跡條에 「枕流亭、在川寧金沙里」가 보이며 또 「川寧廢縣、本高句麗述川郡、一名省知買、新羅改沂川、高麗改今名、顯宗九年、屬廣州、後置監務、本朝太宗朝、例爲縣監、睿宗朝廢之、并子州」라 하였으니 이 往時에 寺院伽藍이 있을만한 곳으로 本文에 記述된 外坪里、道谷里、宮里等에 寺址가 있고 또 走鹿里에도 寺址가 있음을 傳聞하였다.
- ② 彫刻없는 軍基壇에 屋身이 없어진 一、二、三層 屋蓋石만이 남아

있는 約一·二m의 조고마한 塔인데 절에서는 出土된 것이라 하고 部落民은 道谷里石佛이 있는 寺址에서 옮겨진 것이라 하는데 後者의 말이 믿을만하다.
③ 宮里발가운데 寺址로 推定되는 곳에 石塔基壇部와 屋蓋石一個가 殘存하고 있다.

泉隱寺 金銅龕의 金銅坐像

鄭 明 鎬

一九六一年十月 華嚴寺 覺皇殿內의 石經整理後 餘暇를 얻어 隣近 泉隱寺를 踏査할 機會가 있어 이 곳의 遺物을 調査하던중 龕佛二軀가 注目되어 紹介코자 한다.
元來佛龕註에는 三尊이 安置되어 있었다는 바 動亂中 盜難을 當한 바 있고 多幸히 近年에 某處에서 三尊中 二軀를 찾아 奉安케 되었다고 住持僧은 말하고 있었다. 兩像은 同大의 結跏趺坐像으로서 比較的 높은 螺髮에 肉髻가 있고 眉間에는 금지한 白毫



와 목에는 뚜렷한三道가 보이고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서 裙衣와 腰帶가 있으며 袂는 衣褶은 結跏한 발 위를 덮어 앞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臺座는 橢圓形으로 仰伏單蓮이 새겨져 있다. 이 佛龕의 後壁彫刻에 依하면 主尊佛은 毘盧舍那佛로서 左右脇侍佛은 上記한 兩佛像과 同一한 姿勢와 手印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혹시 盜失된 것은 本尊이 아닐까 한다.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實測値는 cm) 總高 十六·五 座高 十三·二 肩幅 六 顔幅 二·五 頭高 五 臺座 幅 八·五.

〔註〕鄭永鎬「智異山 泉隱寺의 金銅佛龕」本誌 第一卷 第四號 參照.

考古美術 卍—

◎ 澗松 全蔭弼先生 二周忌

陰 十二月二十日(二月三日) 澗松全蔭弼先生의 二周忌를 맞이해서 同人一同은 故人之 遺德을 追慕하고 이날을 紀念하기 爲하여 城北洞 故人之 博物館 後園에 六·二五以來로 倒壞되어있던 忠北 槐山郡 七星面 外沙里 浮屠一基를 再建하였다. 一月三十一日 着工해서 二月三日(大忌當日)에 竣工했다. 當日는 金岸基, 金斗鍾, 李相佰博士等 文化財保存委員여러분 趙明基教授 鄭文化財管理局長과 同人一同 및 各新聞社 關係者들이 參席하여 同行事를 紀念했다.

◎ 一九六四年度 第一次文化財委總會

一月二十二日 文化財管理局長室에서 金岸基委員長 司會로 開催되었다.

出席은 金載元, 李敏載 兩副委員 一分委의 李相佰 金斗鍾 金元龍 黃壽永.

第二分委의 任哲宰 박헌봉. 石宙善. 第三分委의 朴萬奎 崔基哲 鄭文基 孫致武外

尹文教次官 鄭局長 李課長 崔泳善專門委員.

一、一九六三年度業績報告(分委別) (油印物)

一、一九六四年度文化財保存事業計劃(別途說明)

一、其他事項으로서 金斗鍾 李相佰委員의 提議에 의하여 無形文化財指定을 推進할 것과 그 國內外 普及 指導에 關하여 公報部에 建議할 것을 決議하다.

◎ 文化財委第一分委第一次會議

一月二十二日 總會에 이어서 開催되었는 바 案件은 다음과 같다.

1、洗兵館(寶二九三號) 補修(二柱門建立과 壇場工事 등)…… 保留한(委員調査後再議)

2、民俗資料指定……「河回탈 및 屏山탈」計 十一面을 國寶指定키로 決議하였다. (第二分委員과 同李杜鉉專門委員合席) 이들은 展示와 保存策을 위하여 中央에 出品指示키로 하다.

3、建大申請의 發掘許可(南原雲峰面 尊향리 산 34, 37, 39)…… 否決.

— 第五卷 第三號 通卷四十四號 —

益山出土의 龍氏作 盤龍鏡

梅原末治

韓半島의 古代遺跡에서는 北方 漢의 郡縣의 古墓에서의 相當數의 古鏡의 遺存을 除外하면 漢江以南에서는 從來의 出土例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考古美術」創刊號에 紹介된 한 鏡은 이 點에서 確實한 한 新知見일뿐 아니라 鏡自體에도 注目할만한 點이 있다. 그런데 그 記錄에는 破損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全北 益山郡 金馬面 蓮洞 胎峯寺 敷地에서 古瓦類와 함께 出土된 由來를 說面하여 六朝의 遺品으로 보고 있고 近刊의 「金石遺文」에는 百濟 金文의 하나로서 殘缺된 銘의 文字가 著錄되어 있다. 그러나 出土後 얼마 안되어 黃壽永氏가 보내준 寫眞이나 拓本에 依하면 鏡은 確實히 後漢代 前半에 中國에서 鑄造된 所謂 盤龍鏡인 것이다.

이제 寫眞에 依하면 鏡은 內區의 半과 周緣의 一部를 缺하고 있는데 面徑 一四·三cm가 되는 鏡體는 半球形에 가까운 鈕를 中心으로 鑿은 主